

통합시청자 데이터로 본 ‘남자친구’



» 글 민경숙 | TNMS 대표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
min.gs@tnms.tv

tvN ‘남자친구’는 방송 전부터 송혜교와 박보검의 출연으로 인해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다.

송혜교가 결혼 후 첫 멜로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점, 아직 송중기와 신혼인데도 과감하게 박보검과의 멜로 주인공을 맡았다는 점, 그리고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와 열애, 그리고 결혼으로까지 이어진 송혜교 감성 연기가 이번 ‘남자친구’에서는 또 어떻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 재방송 VOD 시청이 본방송 경쟁력 이끌어

작년 11월 28일 첫방송된 ‘남자친구’ 시청률(유료가입)은 9.4%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tvN 방송한 드라마의 첫방송 중 가장 높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 홍보 덕분인지 첫회 방송에서 단번에 지상파 월화드라마를 모두 제압하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첫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은 ‘태양의 후예’ 이후 또 다른 흥행작이 터질 수 있다고 한층 더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친구’ 시청률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16부작 동안 시청률은 큰 히트 없이 끝났다. 시청률 하락 원인은 연출, 작가가 포함된 여러 제작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통합시청자데이터(TTA)를 통해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tvN ‘남자친구’ 경우 첫회부터 5회까지는 지상파 수목드라마 중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SBS ‘황후의 품격’보다 많은 시청자 수를 확보했다. 하지만 6회부터는 ‘남자친구’ 시청자 수는 감소하고 반대로 ‘황후의 품격’ 시청자 수는 증가했다. 두 드라마의 시청률 차이는 역전되고, 이후 회를 거듭하면서 ‘남자친구’는 ‘황후의 품격’에 크게 밀렸다. 통합시청자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남자친구’와 ‘황후의 품격’ 간의 경쟁에서 시청률 역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첫회부터 5회까지는 본방송에서 ‘남자친구’ 시청자 수가 ‘황후의 품격’에 비해 많았다. 하지만 재방송 데이터를 보면 ‘남자친구’ 시청자 수가 ‘황후의 품격’에 비해 단지 2회까지만 앞서고, 이후 6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청자 수가 ‘황후의 품격’에 비해 적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뜻은 본방송 시간대를 놓친 시청자들이 첫회와 2회 재방송을 통해 ‘남자친구’를 시청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해 ‘남자친구’ 다음 회차 본방송 시간대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첫회와 2회 ‘남자친구’ 재방송을 시청한 시청자 중 많은 시청자가 이후 재방송조차 시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남자친구’가 본방송에서 뒷심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기 힘들었다. 또 VOD 시청자 분석에서도 재방송 시청에서 나타나는 유사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통합시청자데이

터 VOD 부분을 살펴보면 '남자친구'는 첫회를 제외하고는 VOD 시청자 수에서 '황후의 품격'을 한 번도 따라잡지 못했다. 이처럼 '남자친구'는 재방송과 VOD에서 일찌감치 '황후의 품격'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본방송에서도 '황후의 품격'에 뒤지기 시작했다.

■ 시청자 이탈, VOD ▶ 재방송 ▶ 본방송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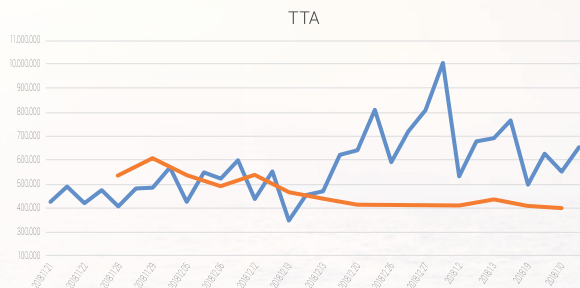
'남자친구'와 '황후의 품격' 통합시청자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시청자가 동일 콘텐츠를 여러 경로로 시청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 재방송과 VOD 시청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본방송에서도 콘텐츠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시청자 이탈 징조는 본방송보다는 추가 유료요금을 지불하면서 시청해야 하는 VOD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고 이후 재방송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방송 시청률 경쟁을 위해서 재방송과 VOD 시청을 함께 연구하지 않으면 본방송 시청률 승리가 어렵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K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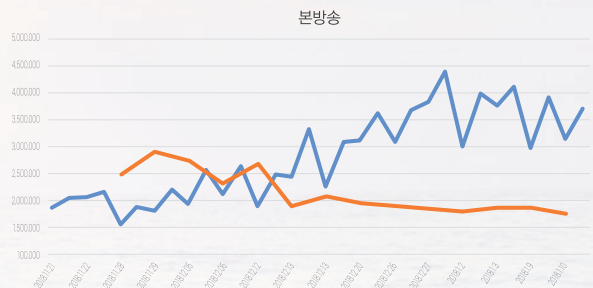
◀ '남자친구' 송혜교x박보검, 메인 포스터

SBS 황후의품격 & tvN 남자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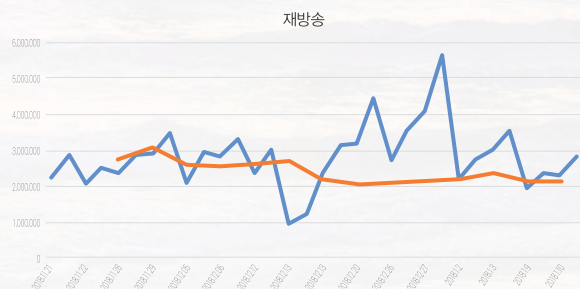
— 황후의 품격 TTA — 남자친구 TTA



— 황후의 품격 본방송 — 남자친구 본방송



— 황후의 품격 재방송 — 남자친구 재방송



— 황후의 품격 VOD — 남자친구 VOD

